

추석 가정 예배

* 가능하면 가정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추석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시 1:1-2 인 도 자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찬 송 621장 (통 없음) 다 같 이

기 도 가족중에서

성 경 시 103:15-18 (구 p.815) 인 도 자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 송 563장 (통 411) 다 같 이

남성가족들이 특별한송으로 해도 좋습니다.

말 씀 여호와를 따르는 인생 인 도 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누구를 따르느냐' 또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교'와 같이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나 '누가 함께 있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따르며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와 동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마다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땅을 갈고 가면서 일을 하고, 소망을 잘 가꿔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잘 가꾼다고 해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이 쉽게 시들고, 그 자량이 가득하더라도 들에 핀 꽃처럼 쉽게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한중의 흠으로 돌아가 그 자취마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2)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외는 존경에서 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또 신하가 왕에게 대하는 두려운 태도를 갖듯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금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3) 사람은 언약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도를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 법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법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만물 행동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신하와 백성이 왕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다시 말하면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까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자신의 능력, 경험, 배경, 돈, 지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이 됩니다.

나눔 다 같 이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점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나눔이 끝나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1) 자기의 한계를 느낀 때는 언제, 무슨일 일었습니까?

2) 하나님을 경외하기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찬 송 545장 (통 344) 다 같 이

축복기도 다 같 이

가정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다 같 이